

넉쿨째 굴러온 '반값' 우리동네에 이런 곳이



카드 제테크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과 전표에 하는 서명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항상 접하는 것이지만,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듯 하다. 먼저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신용카드 관련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거래는 신고 시점 이후의 부정 사용액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회원의 과실 여부가 따지게 된다. 비밀번호는 회원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 정상이지 때문이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라도 회원에게 일정한 과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가 없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를 했거나,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뒷면 사인 없으면 보상 못받아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 회원의 과실로 인식되는 이유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본인 확인 의무와 관련돼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선 신용카드 서명과 매출표 서명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거래 금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구매 후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점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가맹점에서 분실·도난 카드가 사용됐다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가맹점이 피해 금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라면 가맹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 중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회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여권 내 서명도 신경 써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여권 내 소인된 서명이 신용카드 서명과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호텔 체재 시 작성 서류상의 서명 등과 다를 경우 위·변조 사건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동일하게 서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을 경우 아예 결제를 거절 당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은 발생하면 안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중우 신한카드 광주지점장

장 조달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가족이 직접 경영하고 셀프서비스를 유도해 인건비를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

올해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된 광주시 동구 지산동 '하오하오'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 고객층이라 비싸게 받을 수 없어 3000원 팔았던 자장면을 작년부터 2500원으로 내렸다"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직원 수도 줄이고 사장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 정보는 지방불가점정보공개서비스(www.mulga.go.kr)와 광주시와 전남도청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T-price),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9월에 착한가격업소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에게 생생한 업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김밥 1300원·자장면 2500원·목욕비 3000원...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 '착한 업소' 인기

1만원짜리 한 장으로 자장면을 사먹고 미용실에서 커트를 한 뒤 목욕탕까지 다녀와도 1500원이 남을 수 있을까?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하면 가능한 이야기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 '차이나중화요리'와 '하오하오'에서는 자장면을 2500원에 판다. 동구 학동 '윤홍미용실'에서는 커트 비용이 3000원, 동구 동명동 '삼미온천'에서는 목욕료가 3000원이다.

이 외에도 동구 계림동 '김밥대학 찌개과'에서는 김밥을 1300원에, 남구 양림동 '영스네'와 '곰이네 분식'은 비빔밥이 3000원에 판매한다.

또 서구 화정동 '우미가'에서는 4000원 짜리 냉면, 북구 각화동 '여기가 좋겠다'에서는 생삼겹살(200g)을 7000원에 즐길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전국 7132개 '착한 가격 업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각각 256개, 198개 업소가 선정됐다. 이번에 광주에서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256개 중 215개가 외식업소였고, 41개가 세탁업·이미용·목욕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이었다.

전남은 198개 중 177개소가 외식업, 21곳이 기타 개인서비스업이었다.

'착한 가격 업소'들은 산지직거래, 도매시

카드 리빙서비스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리빙 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14일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리빙서비스는 카드 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카드 리빙빙 관련 설명 불충분, 과도한 수수료 청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리빙서비스는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며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히 결제해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상태가 악화하면 리빙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수수료 신용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로컬푸드 장터' 인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농가는 안정적 판로 확보

(주)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사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4일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로컬푸드 장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야채 농산물 부문 전체 매출 중 '로컬푸드 장터'에서 판매된 지역 농산물 매출 비중이 19.1%나 된다.

이마트 광주점 1층 식품매장에 있는 '로컬푸드 장터'는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9년 문을 열었다.

현재 '로컬푸드 장터'는 화순·나주·함평·무안·장성 등 10개 지역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계란·양파·양상추·새송이 버섯·고추·호박 등 20여 가지 지역 유기농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소비자들과 지역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이마트 농산매장 판매 담당



지는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컬푸드 장터'에서는 오는 28일까지 단호박, 양상추, 새송이 버섯 등 지역 농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Contains 15 rows of auction listings.

Table with columns: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Contains 15 rows of auction listings.

Table with columns: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Contains 15 rows of auction listings.